

## 데스크 시각

박 치 경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 “박 대통령님, 이젠 ‘정치’ 좀 하시죠”

됐다. 세월호 참사에 재난이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인사 폐작으로 국민의 불신은 국에 이르렀다. 역대 대통령은 핀치에 물리면 특단의 대책을 애용했지만 박 대통령은 변함이 없었다. 스스로 채운 ‘자존심’이라는 죽족 때문이었을까? 그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 경제살리기, 변화 출발점

그러던 박근혜 정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침체일로의 경제 살리기에 소매를 걷어올렸다. ‘불도저’ 죄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수가 됐다. 우선 부동산 부양책으로 내수를 살리기로 했다. 재벌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반면 경기부양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단기에 효과를 낼지, 41조 원이나 쏟아진 돈이 더 큰 화를 불러올지 알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변화 의지에는 일단 눈길이 간다.

다음은 정치다. 정치를 논하려면 먼저 ‘시대정신’을 살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는 민부·지역·세대의 갈등을 줄이는 게 숙제다. 나라 밖에서는 남북화해협력과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주도권

확보가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빈부격차는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다. 부자는 벌을 어겨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 욕심을 부린다. 없는 사람은 하루 세끼 해결도 빼듯하다. 중앙정부에서 인사와 예산을 둘러싼 영호남 차별은 나라를 들로 갈라놓을 지경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내 갈등 해소와 국제사회에서의 자주적 지위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여겼다.

그러나 웨일인지 이명박(MB) 정부부터 정반대였다. 부자에게는 돈이 더 고였다. 이를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감으로 갈등에 불이 붙었다. 남북 간에는 연평도 포격이라는 준 전시상태가 빚어졌다. 미국 편향 외교전략으로 동북아에서 곤경을 자초했다.

이명박 정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량 평’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은 더 크다. 경제민주화는 아직 구호를 맴돌고 있다. 호남 소외에 따른 ‘지역 차별 병’은 더 깊어졌다. 차리리 희망이라도 가지 않았더라면 허탈감은 이보다는 덜 했을 게다.

## 국민 뜻 수용이 이기는 길

이명박 정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량 평’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은 더 크다. 경제민주화는 아직 구호를 맴돌고 있다. 호남 소외에 따른 ‘지역 차별 병’은 더 깊어졌다. 차리리 희망이라도 가지 않았더라면 허탈감은 이보다는 덜 했을 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 혼풍은 기대 난이다. 미·중·러·일에 둘러싸여 우리의 확실한 주권을 지켜가는 일도 간단치 않다. 이쯤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지난 28일부터 청와대 내에서 휴가 중이라는 소식이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사정은 좋지 않지만 머리를 식히며 정국구상을 하려는 것 같다.

휴가 후 국정에 복귀할 박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는 제발 정치를 좀 하시라”는 주문이다. 포퓰리즘이어서는 안되지만, 야당이 비난해온 ‘통치’(統治)가 더 이상 이어지면 위험하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선택했더라도, 보수정치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과의 갈등은 멈추지 않게 된다.

박 대통령의 품격과 나라 위한 종정은 십분 이해한다. 이젠 자신의 원칙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야당의 주장이 옳으면 ‘선제적’으로 수용하라. 대중과 야당을 끌어안으면 박 대통령이 승자가 된다.

박 대통령은 멋있는 정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이니까… 국민은 확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unipark@

## 社 說

## 광주시 조직개편안 부결, 후유증 우려 크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출발부터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자신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특히 취임 초반 구상한 조직운영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행정력 낭비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의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가 요청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부결 시켰다. 앞서 광주시는 참여형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개편안이 출속으로 만 들어졌다면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고, 행자위는 표결 끝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 윤 시장은 의회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를 찾아가 개편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본회의에서 뒤집어져 낭패만 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이례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당장 승진 인사 지연과 근무평정 재평가 등으로 내부 혼란과 반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간부들이 모두 나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일관한 태도이다.

시의회와 의장도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의원들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면서 자체 갈등을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영표 의장 역시 일부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의장으로서 체면을 구겼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더 이상 우(愚)

를 범해선 안 된다. 광주시는 이번에 드러난 정부 기능과 소통 부재를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의회도 경제와 비

판은 필요하지만 평화로 인한 감정적 대처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하는 게 순리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들 기관은 1995년에 광주 까지 이어오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7년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상생’이 학두로 떠오르면서 시·도 싱크탱크의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 낙연 전남도지사는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전남의 동반 발전을 위해 연구원도 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두뇌 집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앞날을 설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광주·전남의 두뇌 집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앞날을 설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원은 광주공항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장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 정복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광주·전남의 두뇌 집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앞날을 설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원은 광주공항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장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 정복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원은 광주공항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장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 정복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원은 광주공항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장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 정복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원은 광주공항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장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 정복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원은 광주공항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장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 정복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 온펜칼럼

류 동 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고통 소록도(小鹿島). 위에서 보면 작은 아기사슴을 닮았다고 하여 작은 소, 사슴 혹은 자를 넣어서 소록도라 불리운다. 고통은 필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소록도가 섬이어서 그저 농동항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직접 가보지 못한 재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이라는 말만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소록대교도 놓여있고, 근처 금산 거금도 섬까지 거금대교까지 개통되어 멋진 해안선을 따라 바로 차로 쉽게 소록도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며칠 전 농촌체험 당시를 위해 소록도를 사십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가 보고는 많은 감동과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록도 벽돌공장에서는 매일 수만 장의 벽돌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강제노역이 시작되었고, 인건비도 대폭 심한 채 노동착취를 하였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록도 벽돌공장에서는 매일 수만 장의 벽돌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강제노역이 시작되었고, 인건비도 대폭 심한 채 노동착취를 하였다.

중국에서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물론 정율성 선생은 있다고 할 정도인데, 위대한 작곡가 정율성이 태어나고 자란 광주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라오평요우’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중국인들이 ‘라오평요우’라고 부르는 몇 안되는 외국 인물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정치적 고향이 광주이고 보면, 광주는 중국의 ‘라오평요우’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3억 중국인 중에 광주가 그들의 ‘라오평요우’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심지어 광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도 정율성 선생의 고향이 광주라는 것을 알고 새삼 놀라워 할 정도이다.

정율성 선생은 ‘연안송’, ‘팔로군행진곡’ 등 360여 곡을 작곡하여, 중국의 3대 음악가이자 13억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에 중국인이 뽑은 ‘신중국 창건영웅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중국 인구의 40%인 6억 명 이상이 정율성을 기리고 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 팩스 062-222-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 팩스 062-222-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501-710 광주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 팩스 062-222-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501-710 광주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 팩스 062-222-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501-710 광주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 팩스 062-222-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